

韓國最初の 女醫師 金點童(朴Esther) (1876~1910)

기 창 덕/기창덕 치과의원장



女醫師 金點童(朴Esther)

金點童은 美國 북감리교회 선교사 H. G. Appenzeller를 도와 정동교회에서 잡무를 보던 김홍택의 넷째 딸로 1876년 3월 16일 서울 정동에서 출생하였다. 일찍이 서양인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김홍택은 어린 金點童을 권유하여 1886년 이화학당에 입학시키어 신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 당시는 장로교회의 Horace N. Allen박사와 감리교회의 William B. Scranton박사가 한성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서양의술에 의한 질병치료를 하고 있었고, 특히 감리교회에서는 金點童이 이화학당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한 다음해인 1887년 10월부터 婦人專門病院인 保救女館을 정동에 설립하고 여자의사 Dr. Meta Haward가 전적으로 부인만을 상대로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나 保救女館을 설립하고 진료를 담당했던 Dr. Meta Haward가 2년간의 격무로 건강을 해쳐 귀국하게 되었다. 이 Dr. Meta Haward의 후임으로 1890년 한국에 도래한 여의사가 바로 한국에 40여년간이나 거주하면서 한국의 여성을 위해 의료사업과 여성의 의학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파견한 Philadelphia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여의사 Rosetta Sherwood여사였다. Rosetta Sherwood여사는 조선말을 배울 기회가 없어 도착하자 통역을 고르고 있었는데, 마침 약 4년간 이화학당과 미국인 선교사들로 부터 영어를 배운 15세의 金點童이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게되어 세례명을 Esther로 하고 Rosetta Sherwood 여사의 통역으로 추천되었다.

Rosetta Sherwood여사는 조선에 파견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같은 교회의 William James Hall박사와 약혼한 사이여서 William J. Hall박사가 1891년 12월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오게 되자 둘이는 1893년 6월에 결혼을 하고 保救女館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William James Hall 박사가 1893년 4월 1일부터 平壤에서 의료선교활동을 하게되어 Rosetta S. Hall여사도 남편을 따라 1894년 5월 平壤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Rosetta S. Hall여사는 金點童을 平壤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1893년 5월 24일, 24세의 박유산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시키고 있었다.

金點童은 선교사들의 미국식 성을 따라 朴 Esther가 되어 이때부터 朴 Esther로 불리웠다. 朴 Esther는 Rosetta S. Hall 여사가 남편이 일하는 병원의 한 방을 얻어 여성전문병원인 廣惠女院을 설립하고 여성환자를 진료하게 됨으로 역시 한성에서와 같이 통역을 하면서 Rosetta S. Hall여사를 도왔다.

平壤으로 이주한 그해 즉 1894년 일본은 청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어 平壤에서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Rosetta S. Hall 여사와 남편 William James Hall 박사는 하는 수 없이 일단 피난을 하였다가 수개월후에 다시 平壤으로 돌아갔으나 平壤은 전쟁으로 파괴되어 있었고 전사한 청국 군인의 시체와 총에 맞아 죽은 동물들의 처리와 부상당한

만리 타항에서 외롭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던 박유산은 朴 Esther가 醫學校를 졸업하기도 전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朴 Esther는 남편의 사망을 슬퍼하면서도 醫學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하여 1900년에 醫學校를 졸업하고 M. D. 학위와 의사자격을 얻었다.

환자들을 위한 진료 등 매일같이 분주하게 구호에 열중하였으나 때마침 콜레라의 만연으로 平壤은 매우 오염되어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감리교회와 장료교회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환자의 치료와 콜레라예방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격무로 과로가 겹치어 William James Hall 박사는 극도로 쇠약해져 휴양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그래서 William James Hall 박사가죽과 朴 Esther내외는 한성으로 휴양차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 William James Hall 박사일행은 鎭南浦에서 日本汽船을 타고 돌아왔다. 이 배에서 William James Hall 박사는 생각지도 못한 발진티프스에 전염되었다. 한성에 도착하자 고열로 신음하던 William James Hall 박사는 부인 Rosetta S. Hall 여사와 동료 의사들의 정성어린 치료와 간호에도 효과없이 1895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잃은 Rosetta S. Hall 여사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1896년 일시 귀국길에 올랐다. 이때 Rosetta S. Hall 여사는 박유산과 Esther내외도 데리고 갔다. Rosetta S. Hall 여사를 따라 1896년 미국에 도착한 박유산 내외는 우선 Rosetta S. Hall 여사의 친정집이 있는 New York의 리버티에 머물면서 박유산은 Sherwood家の 농장에서 일을 하고 朴 Esther는 리버티의 공립학교에 등록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우선 기초교육을 받고 9월부터는 幼兒病院에 들어가 근무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개인교수로 부터 醫學校에 진학할 준비로 라틴어, 물리학, 수학 등을 공부하였다. 이렇게 준비한 朴 Esther는 1896년 10월 1일 boltimore에 있는 Women's Medical College of Boltimore에 입학하였다. 朴 Esther가 醫學校에 진학하자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남편 박유산은 醫學校가 있는 Boltimore으로 옮겨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朴 Esther를 도왔다. 만리 타항에서 외롭게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던 박유산은 朴 Esther가 醫學校를 졸업하기도 전에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朴 Esther는 남편의 사망을 슬퍼하면서도 醫學공부를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계속하여 1900년에 醫學校를 졸업하고 M. D. 학위와 의사자격을 얻었다.

朴 Esther는 1900년에 한국여성으로는 최초의 의사가 되어 귀국하였다. 한성에 돌아와서는 保救女館에서 한국 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 이 당시의 保救女館은 감리교회의 선교여의사 Lillian Harris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朴 Esther가 귀국하자 保救女館을 朴 Esther에게 맡기고 Dr. Lillian Harris는 平壤의 1895년 廣惠女院으로 시작한 平壤婦人病院으로 전임하였다. 그러나 Dr. Lillian Harris는 불행히도 약 2년간 봉직하고 티프스에 전염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Dr. Lillian Harris가 사망하자 保救女館의 朴 Esther가 平壤婦人病院으로 옮겨 Rosetta S.Hall 여사를 도와 의료봉사를 하게 되었다. 朴 Esther가 부임하자 병원은 매우 활기를 띠고 성황을 이루었으나 朴 Esther는 극무에 시달려 몹시 과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편에 이르자 Rosetta S.Hall 여사는 1907년 역시 감리교회의 선교여의사인 Miss Sarak Hillman이 새로이 파한되어 오게 되자 朴 Esther를 쉬게 하고 새로 부임한 Dr. Sarak Hillman을 平壤婦人病院에서 일하게 하였다.

朴 Esther는 공기 좋고 과로하지 않을 해서지방에 순회진료와 여성을 위한 위생강연 등을 하게 하면서 쉬게 하였으나 신체의 허약과 영양실조는 드디어 폐결핵으로 진행되어 요양을 위해 北京에 가셔도 휴양을 해 보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한성으로 돌아와 언니의 집에서 병상생활을 하다가 1910년 4월 13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실은 곧 각 신문에 보도 되었으며 4월 15일에 朴 Esther가 세례를 받은 貞洞禮拜堂에서 그를 사모하는 많은 인사들의



海西地方 巡迴診療光景

■ **朴 Esther와 같은 의학계의 선구자가 있어 희생적인 봉사
의술로서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가난하고 병든 동포에 미치어
거룩하고 숭고한 정신의 신성한 직업임**

애석해 하는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朴 Esther를 존경하고 사모하던 종교계의 인사들과 친지, 동료, 시민들은 장례식이 있는 10여일후인 4월 27일 천년회관에 모여 추도식을 가졌다.

朴 Esther는 韓國 최초의 여의사로 10년간 여성을 위해 진료하고 교육을 하면서 지냈다. 일본의 간계로 한국, 즉 李朝가 기울어져 가고 있던 1910년 그 당시 한성에는 大韓醫院이 완전히 일본인들의 병원으로 개편성되어 있어 醫學校를 졸업한 한국인 의사들중 불과 몇명이 대한의원에서 조수로서 천대를 받으며 배우고 있는 형편이었고 군의로 봉직하던 醫學校출신 의사들은 1909년 7월 군의 해산으로 졸지에 민간인이 되어 이리 저리 흩어져 개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 누구보다도 일찍이 우수한 의학교육을 받고 돌아와 특히 천시되고 있던 부인들을 위해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봉사한 그 숭고한 정신과 실천은 우리가 영원히 추앙해야 할 우리 의료인의 상중이기도 하다.

1910년 이 당시의 한국인 의사는 醫學校를 졸업하고 군에서 복무하다 군의 해산으로 민간인이 된 약 30여명이 의사와 세브란스병원 醫學校졸업 의사 7명이 일본인에게 모든 이권과 농토마저 약탈되어 온 국민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지만 이들은 의원의 개설로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질병에서 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한국사람들도 차츰 醫學을 이해하고 공부하게 되어 의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朴 Esther와 같은 의학계의 선구자가 있어 희생적인 봉사와 의술로서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가난하고 병든 동포에 미치어 거룩하고 숭고한 정신의 신성한 직업임을 보여주어 당시의 의사들과 서민들이 이를 보고 알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치과영역의 구호사업도 겸해져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이 숭고한 정신의 朴 Esther 의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부족하나마 자료에 의하여 기록해 둔다.